

불교적 교육의 키워드 '자각·실천·국제화·인간'

동국대 주최 대만 성운 스님 초청법회·토론회

동국대 초청 대만 불광산사 개산종장(開山宗長) 성운 스님 초청 법회 및 토론회가 4월26일 오전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렸다.

성운 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자각·실천·국제화·인간적 교육 등 4가지 방향에서의 불교적 교육 방식을 언급하면서 국제 흐름과 현대 교육의 방향에 대한 불교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성운 스님과 동국대 총장 홍기삼 총장, 그리고 대만의 불광대학 짜오닝 총장과 남화대학 첸마오셴 총장, 미국 LA 서부대학 랭가스터 총장 등 대만 불광산사 교육기관인 3개 대학의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화시대, 불교가 무엇을 줄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화합·평등·이타행 등의 불교 가치관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법회 및 토론회에 앞서 동국대는 교육과 사회사업을 통해 사회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문화 예술의 창달에도 기여하면서 양국 불교 및 문화교류에도 많은 공헌을 한 점을 높이 평가해 성운 스님에게 명예철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다음은 성운 스님의 법문과 토론회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성운 스님은 사회봉사와 불교문화창달에 기여한 공로로 동국대에 명예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4개대 총장과 토론회(요약)

세계화 시대, 불교는 무엇을 줄 것인가

△성운 스님- 지금 현재 세계 도처에서는 국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평화와 테러리즘을 방지하는 것이 절실하며 환경과도 심각한 수준이다. 인간관계에서의 화합과 우호를 돈독히 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임을 알아야 한다.

△홍기삼- 국가나 민족, 가족이나 기타 공동체를 포함한 어떤 집단의 이익도 존재와 사물 일반이 가지고 있는 권리보다 우선하지는 않다. 상호의존성, 즉 연기법에 의해 이 세계가 인드라망이 되어가고, 이것이 곧 세계화의 지름길이다.

△랭카스터- 불교가 우수한 종교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 모든 이들에게 동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불교가 계급과 분별을 초월한 평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평등의 원칙이야말로 인류에 꼭 필요한 덕목이다.

성운 스님 법문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는 교육 기도·예불보다 실천이 중요 국제화 위해 언어는 필수 인간세계 떠난 불법은 없어

사람은 누구든, 어떤 나라든, 또 생명있는 모든 것은 평등하다. 단지 구별된다면 교육을 통해 수준을 향상시키고 어떤 인재를 태어나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교육방식이 존재하지만 불교적 시각에서 내 가지 방식을 얘기할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세자 시절에는 스승이 있었지만 출가하고 나서는 당시 스스로가 스승이었다. 깨달음이란 스스로 이치를 증득하는 것이다. 수행은 바로 마음속의 지혜를 스스로 여는 것이다. 자각하는 교육은 스스로 깨닫는 교육을 말하며, 스스로가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제자가 10년 동안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으며 떠나겠다고 하자 스승이 옷자락에 떨어진 실밥을 보여주며 "이것

△첸마오셴- 우리 불교가 진정으로 전경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생사윤회와 전경이다. 탐욕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야만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러한 행동이 실천에 옮겨질 때 세계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

△짜오닝- 이타행이야말로 전쟁과 환경 문제 등 현대사회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야 한다.

불교가 인간의 삶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

△홍기삼- 동국대에서는 불교생태학 연구에 비중을 두고 있다. 불교생태학 연구는 생태학에서 불교의 근대적 연구방법을 찾는 것과 동시에 불교의 철학적 원리를 생태학에 적용하는 것이다. 경쟁원리가 아니라 공존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불교가 줄 수 있는 가르침이자 교육방식이다.

△랭카스터- 하나의 인(因)이 수많은 과(果)를 만들어낸다.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알도록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윤회와 도덕이 왜 중요한지 인과의 도리를 통해서 설명해주어야 한다.

△첸마오셴- 석유를 생산하면서 매연을 염두에 두지 않았



4월 26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법문하고 있는 성운 스님.

이 바로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그 제자는 이 한 마디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 만약 내가 이 자리에서 잠삼을 벗어 혼든다면 여러분들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 제자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10년 세월 속에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현재의 교육은 자료가 풍부하지만 실천은 부족하다. 지금 학생들은 실천할 줄을 모른다. 신도들도 마찬가지다. 부처님께 기도하고 예불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 행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실천이 뒷받침되도록 해야만 가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실천이 없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문을 닫아걸고 자기도취에 빠져있어서 안된다.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묶여있고 새로운 문화가 계속 생산되고 있다. 문을 열고 국제무대로 걸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부처님 재세시 단 한 번도 부처님이 사회와 격리된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우리 조사 스님들이 불교를 점차 산으로 끌고 들어갔다. 인간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불법이라도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없다. 내가 인간불교를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세계를 떠난 불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다. 불교가 인간적인 교육을 하는데 밑바탕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면 그것은 생산자의 잘못이다. 바람직한 것은 매연이 나지 않는 석유를 생산하는 일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석유를 생산하기 보다는 매연이 나지 않는 석유를 생산하기 위한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적 교육논리의 가치는 바로 이런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자각성에 있다.

정리=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4개대 총장들은 현장에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한국의 비구니 스님 <14> 해주 스님

빈틈없이 행동하는 수행자

"가만히 앉아서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교가 사회와 동떨어져서는 안됩니다. 수행자로서 교육, 환경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 회룡사 해주(惠珠) 스님은 세수가 80이 훌쩍 넘었지만 아직도 행동하는 수행자로 유명하다. 서울의과대학교도 북한산 관동 반대에 앉았었고 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스님은 지금도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을 다 외우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만 못하며 실천이 불교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1925년 일본에서 태어난 스님은 청년시절 일본 적십자병원에서 간호교육을 받는 등 근대 교육을 받았다. 의료시설과 종사자가 부족했던 조국의 현실이 안타까워 20세에 한국으로 돌아온 스님은 의료



등기를 마쳐 삼보 재정의 유실을 막기도 했다.

스님은 회룡사 선방에서 40년 이상 안거를 성만했고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참선 수행을 하는 등 수행에 열심이다. 포교에도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다. 군사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군중법사가 파견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군법당을 찾아가 군 장병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있다.

군·교도소 등 소외지역서 포교 종합학교 설립·환경운동 앞장

한국 전쟁 때

는 대구 동산병원, 9군단 민사처

병원 등 전장의 아전 병원에서 맹활약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스님은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며 '왜 사는가' 라는 인간 근원의 물음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됐고 1959년 은사이신 도준 스님과의 인연으로 회룡사서 출가했다. 62년 도준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 66년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해주 스님은 비록 은사스님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은사스님이 아직도 살아계신다고 하신다. 해제철에도 선방에 앉아 홀로 수행을 했을 만큼 철저했던 은사스님은 가난했던 시절 어쩔 수 없이 논농사를 위해 모내기를 할 때도 죽비를 쳐 가며 울먹을 하는 등 일상이 곧 수행처라는 것을 가르쳤다. 그래서 해주 스님은 사찰 수호와 불교홍포를 위해서 과감히 산문을 나섰다. 6·25 당시 미군에 의해 불타 버린 회룡사를 전쟁 이후 은사스님을 도와 대웅전 등 지금의 사격을 갖추는데 전력했고, 1963년에는 경내지의 수복

지역 포교에도 매진해 왔다.

해주 스님은 1970년대 초 의정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 7명과 함께 불교가 사회에

대응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자비회를 창립했다. 초창기에는 기금 모금과 친목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지만 80년대부터는 매일 20여명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등 다양한 지역사회 운동을 펼치고 있다. 스님은 또 지역에 불교종합학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서원해 1974년 지금의 광동여고 전신은 광동전수학교를 설립했고, 1984년에는 자비회 기금을 바탕으로 자비유치원을 개원 20여년을 원장으로 활동하며 불교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회룡사 주지 성진 스님은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공심으로 살아가는 스님의 모습을 보면 저절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긴다"며 "최근 북한산 관동도로 문제로 건강을 돌보시지 않고 다소 기력이 떨어진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와 의정등록 다수 보유업체◆

팔모접등

팔모조립등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보관상대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광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경고 합니다.